

# 오늘 KBO리그 MVP·신인상 시상식...KT 집안잔치 예고

MVP에 로하스·신인상은 소형준 유력

홀드왕 주권·도루왕 심우준도 첫 참석

창단 후 첫 가을야구에 성공한 KT 위즈가 주요 개인상까지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늘 오후 2시 임피리얼 펠리프 호텔에서 2020 KBO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상 주인공을 발표한다.

MVP, 신인상 투표는 정규시즌 종료 다음날인 11월1일 하루동안 진행됐다.

2020 KBO리그를 담당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의 취재 기자 11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MVP는 1위부터 5위(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1위 5점, 2위 3점, 3위 1점)까지 개인별 득표 점수를 합산, 최고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최종 수상자가 된다.

MVP가 가장 유력한 선수는 KT 멜 로하스 주니어(30)다.

로하스는 142경기에 출전, 홈런(47)·타점(135)·득점(116)·장타율

(0.680)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타율(0.352)·최다안타(192) 부문에서는 2위에 올랐고, 출루율(0.433) 3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공격 부문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냈다.

로하스의 질주와 함께 KT가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하며 창단 첫 포스트시즌을 맞이했다는 점도 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했다.

올해 투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20승(2패)을 달성한 라울 알칸타라(두산 베어스)가 경쟁자로 꼽히지만, 로하스의 임팩트를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15년 1군 진입 후 아직 MVP를 배출한 적이 없는 KT에게 로하스의 MVP 수상은 구단에도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신인상은 KT의 고졸 신인 소형준(19)이 품을 가능성이 크다.

2020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KT 유니폼을 입은 소형준은 데뷔전인 5월8일 두산 베어스와 경기부터 역



왼쪽부터 KT 로하스, 소형준, 주권, 심우준.



대 8번째로 고졸 신인 데뷔전 승리를 챙기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일찌감치 선발 자리를 꿰찬 그는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투구로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이끌었다.

시즌 성적은 26경기 13승6패 평균 자책점 3.86. 박종훈(SK 와이번스)과 함께 국내 투수 중 최다승을 올렸다.

고졸 신인이 두 자릿수 승리를 따낸 것도, 국내 최다승 투수에 이름을 올

린 것도 2006년 류현진(당시 한화) 이후 처음이다.

로하스가 MVP, 소형준이 신인상을 거머쥐게 되면 KT는 역대 여섯 번째로 단일 시즌에 MVP와 신인왕을 동시에 배출하는 팀이 된다.

앞서 198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MVP 김성한-신인상 이순철이 함께 영광을 안았다.

1993년 삼성에서 김성래(MVP)-

양준혁(신인상)이 동시에 수상했고, 2006년에는 한화 이글스 류현진이 MVP와 신인상을 모두 석권했다.

2007년에는 두산 베어스가 다니엘 리오스(MVP)-임태훈(신인상)의 수상으로 경사를 맞았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박병호와 서건창이 각각 MVP와 신인상을 따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KBO리그

부문별 1위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이미 로하스가 '타격 4관왕'으로 각종 상을 휩쓸 KT에는 축하할 일이 또 있다.

주권은 31홈런을 때내며 홀드왕을 차지했다. 심우준은 35차례 도루에 성공, 도루 1위에 올랐다.

주권과 심우준 모두 1군 타이틀을 홀더로 처음으로 시상식에 참여한다. 서선욱 기자

## 피겨 유영, 그랑프리 6차 대회 종합 7위

최하위로 밀렸다가 7위까지 올라서는 뒷심 보여



한국 피겨 여자 싱글의 간판 유영(16·수리고)이 이번 시즌 처음 나선 국제대회인 2020~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NHK 트로피'에서 종합 7위에 올랐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최하위로 밀

렸다가 7위까지 올라서는 뒷심을 보여줬다.

유영은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67.13점, 예술점수 59.04점으로 126.17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55.56점

을 받았던 유영은 총점 181.73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뒷심이 두드러졌다.

유영은 쇼트프로그램에서 12명 중 최하위로 머물렀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반등하며 7위까지 순위를 올렸다.

그랑프리 시리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차례 시리즈 가운데 1차와 3차, 5차 대회만 치러졌다.

그나마도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어려워 개최국 선수들과 인근 국가 선수들만 출전했다.

이로 인해 유영은 올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에 참가하는 유일한 한국 선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의 사카모토 와오리가 총점 229.51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허구치 와카바(200.98점), 마츠이케 리노(198.97점·이상 일본)가 뒤를 이었다.

김희희기자

## 2021시즌 슈퍼레이스, 내년 5월 개막...총 8라운드

내년 시즌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5월 막을 올린다.

슈퍼레이스는 2020시즌 최종전이 열린 29일 2021년 일정을 발표했다.

새 시즌은 내년 5월 시작된다. 5월 16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개막전이 레이싱의 시작을 알리는 녹색 깃발이다.

2016년 다시 문을 연 이후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는 6번째 슈퍼레이스의 새 시즌을 알리는 장소가 됐다.

2라운드 레이스는 6월13일 전남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3라운드는 강원도 인제군으로 장소를 옮겨 7월10일 인제스피드돔에서 진행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열리지 못해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던 나이트레이스가 돌아온다.

8월21일과 22일 4라운드는 다시 전남도 영암군으로 장소를 옮긴다.

아시아모터스포츠카니발로 치러지는 4라운드 일정에서는 새로운 레이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5일에는 인제스피드돔에서 5라운드 일정인 강원국제모터페스타가 개최된다.

10월17일 다시 영암에서 열리는 전남GT에서 6라운드 레이스를 치른다.



5개월여의 대장정은 용인에서 끝난다. 10월30일과 31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더블라운드 일정으로 챔피언십을 가리며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 8라운드의 레이스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3회,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3회, 인제 스피드돔 2회로 예정됐다.

김민정기자

## “김하성, 토론토와 잘 맞는 선수”

미국언론 “3루수로 적합”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김하성을 향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류현진의 소속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어울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 사이트 팬사이드는 29일(한국시간) '왜 토론토는 김하성에게 관심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하성을 집중 조명했다.

"MLB가 열리지 않을 때 KBO리그를 본 팬이라면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친숙할 것"이라고 밝힌 이 매체는 김하성의 시즌 성적을 상세히 소개하면

서 "만 25세로 나이가 적어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토론토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유격수로 뛰던 김하성이 MLB에서는 3루수가 적합할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토론토에 꼭 필요한 자원이자라고 설명했다. 기존 3루수 트레비스 쇼의 자리를 김하성이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예상이었다. 밀워키를 거쳐 올해 토론토에 합류한 쇼는 정규시즌 50경기에서 타율 0.239, 6홈런, 17타점에 그쳤다.

팬사이드는 토론토가 쇼와 재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뒤 "(3루수는) 김하성이 합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앞서 팬그래프닷컴이 타율 274, 23홈런, 82타점, 17도루를 김하성의 2021년 예상 성적으로 책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만일 이런 예측이 맞다면 김하성은 라인업에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스피드 역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년 4000만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는 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이 가격에 영입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보았다.

뉴스스



## 김선우 상주상무 전역 후 전남드래곤즈 복귀

미드필더 김선우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전남드래곤즈로 복귀했다.

지난 22일 상주상무를 전역한 김선우는 선수단 휴가 복귀 일정에 맞춰 26일 사무국을 방문하여 복귀 인사를 나눴다. 1993년생인 김선우는 대한민국 U-20, U-23 등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이다.

2015년 제주에서 프로 데뷔하여 3년간 제주와 경남을 오가며 28경기에 출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줬고, 유상철 감독을 따라 2018년 전남에 입단했다.

2018시즌 전남에서 중용되며 14경기를 출전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교육청, 비대면 전남 Two-Way 학생스포츠 축제

제기차기 등 14종목 코로나19 예방 위해 온라인 상 경쟁

매년 개최되는 전남학생스포츠 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0. 비대면 전남 Two-way(쌍방향) 학생스포츠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형식의 대면 접촉 스포츠 클럽대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 체력 저하 및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대회는 개인 제출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참가를 원칙으로, 개인이 연습하고 참여 가능한 제기차기 등 14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9개 종목(배구, 배드민턴, 육상, 줄넘기, 매달리기, 탁구, 비피텐, 플랭크, 티볼)의 경우 영상 심사 후 종목별 대표팀 선발하고, 5개 종목(농구, 저글링, 제기차기, 축구, 스포츠스태킹)은 8강을 선발해 27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해 최종 우승한 학생들은 12월 12일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전남대표선수로 출전할 예정이다.

'2020. 비대면 전남 Two-way 학생스포츠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한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옮겨 시·공간을 초월해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온라인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교육청 김선치 체육건강예술과장은 "온라인 대회 운영을 위해 전남도교육청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http://sportsclub.or.kr), 코로나 19로 인한 활동 제한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옮겨 향후에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마련하겠다." 말했다.

김정환기자